

현대차 GBC, 공공기여 2조로 늘려 글로벌 문화시설 조성

〈서울 삼성동〉

서울시와 최종협상… 2031년 준공
전시장·공연장·도심숲 등 예정
일부 교통개선대책 추가 부담 합의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7만 9341㎡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사업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다시 시동을 건다.

49층 타워 3개동에는 오피스와 호텔을 비롯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전시장 등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타워동 최상층부에는 한강과 도심이 내려다보이는 전망 공간을 설치한다. 타워 사이에는 서울광장 2배 규모 녹지도 조성해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중심지’로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의 변경 제안으로 시작된 GBC 사업 추가협상을 지난해 12월 30일 완료했다. 공공기여 총액을 기존보다 늘려 약 1조 9827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일부 교통개선대책 추가 부담도 합의해 시민공간



서울 시는 현대차그룹의 변경 제안으로 시작된 GBC 사업 추가협상을 지난해 12월 30일 완료했다. GBC 사업은 코엑스 맞은편에 현대차그룹 신사옥 등을 짓는 프로젝트로, 현대차그룹이 2014년에 옛 한전부지를 매입하고 2016년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거쳐 최고 105층 높이 업무·호텔·문화 복합시설을 짓기로 했다. /서울시

과 편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GBC 사업은 코엑스 맞은편에 현대차그룹 신사옥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현대차그룹이 2014년에 옛 한전부지를 매입, 2016년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거쳐 최고 105층 높이 업무·호텔·문화 복합시설을 짓기로 했다. 이후 군 작전 제한 사항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 등에 따

라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2월 변경계획(안)을 제출했고 도시·건축, 교통, 공공기여 등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 지난해 말 최종협상이 마무리됐다.

◆전망 공간, 전시장·공연장 등 조성
협상 결과, 약 242m 높이 49층 타워 3개 동에는 업무·호텔·판매시설과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영동대로변 전면부에는 전시장 및 공연장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 아울러 전시장과 공연장을 포함한 저층부 옥상(높이 약 40m)에는 약 1만5000㎡의 대규모 정원을 조성해 도심 속 휴식 공간을 확보한다.

‘전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 과학관 등과 협업체를 선도하고 다양한 전시·회의 등 유익한 메뉴로도 복합 활용될 전망이다.

약 1800석 규모 ‘공연장’은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서울의 문화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워동 최상층부에는 전망공간을 설치해 시민들이 한강·탄천·강남 도심을 비롯한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계획했다.

GBC 중앙에는 영동대로와 지상광장을 연결하는 1만4000㎡의 대규모 ‘도심숲’도 들어선다.

◆공공기여 총 1조 9827억원으로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당초 계획했던 특정지정용도 이행 곤란에 따라 공공기여 총액을 약 1조 9827억원으로 증액하는 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공공기여 제공과는 별개로 현대차그룹은 전시장, 공연장, 전망공간 등 공공시설을 규모 있게 설치하고 일부 교통개선대책도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특정 지정 용도는 폐지했지만, 전시장, 공연장, 전망 공간 등 시민 문화·여가시설을 규모 있게 설치·운영해 개발 계획 공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당초 교통개선대책인 삼성역 확장, 버스환승센터 설치 등에 더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일부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GBC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인프라 구축과 지역 일대 교통체증 개선을 위한 도로사업, 한강·탄천 수변공간 조성 등에 사용 중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의학계열 정시지원 전년비 25% ‘뚝’

자연계 높고 상위권 진로 지형 변화
의대 지원자 수 감소 폭 가장 커

2026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 지원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자연계는 오히려 늘어 상위권 수험생의 진로 선택 구도가 달라지고 있다.

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정시에서 의·치·한·수·약 등 의약학계열 전체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6001명, 24.7% 감소해 1만8297명으로 최근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약대 학부 전환이 완료된 2022학년도 지원자 수(2만 7221명)과 비교해 8924명, 32.8% 줄어든 규모다. 반면 서·연·고 자연계열 지원자 수는 428명, 4.4% 증가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부문별로 보면 의대 지원자 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년 대비 ▲의대 32.3% ▲약대 22.4% ▲치대 17.1% ▲수의대 14.5% ▲한의대 12.9% 줄며 의약학계열 전 부문이 동반 하락했다. 의대 모집정원 축소에 따른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실제 감소 폭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평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특히 경인권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의약학계열 정시 지원자 수는 서울권에서 582명, 11.6%, 경인권에서 647명, 38.7% 줄었다. 이밖에 ▲충청권 1266명(30.2%) ▲대구경북권 1098명(30.2%) ▲호남권 978명(26.9%) ▲부울경 695명(25.4%) ▲강원권 449명(20.7%) ▲제주권 286명(22.8%) 감소했다.

지원자수 감소에도 경쟁률은 부문별로 엇갈렸다. 2026학년도 기준 의대 평균 경쟁률은 6.61대 1, 한의대 10.59대

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치대(5.58대 1) ▲약대(7.38대 1) ▲수의대(8.32대 1)는 전년 대비 하락했다. 전국 109개 대학 의약학계열 평균 경쟁률은 7.23대 1이었다.

이와 달리 서·연·고 자연계열은 지원자 수가 증가했다. 서울대 자연계는 221명 줄었지만, 연세대는 192명 늘었고 고려대는 457명 증가했다. 서·연·고 인문계열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1374명(16.3%)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이번 결과를 두고 의대 선호도 하락이 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로 확산하며, 의약학계열 전반에 대한 선호가 주춤한 흐름으로 해석했다. 다만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대 모집정원과 관련한 정책 변수에 따라 향후 지원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수원시, ‘생활비 패키지’로 경제 부담 완화

출산·교통·주거 지원하고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혜택

수원시가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새빛 생활비 패키지는 ▲출산지원금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청년 주거 패키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어르신 무상교통 ▲사회초년생 청년 무상교통 ▲등록 장애인 무상교통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출산 가정부터 청소년·청년·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고르게 혜택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출산지원금은 첫째 자녀 50만 원을 신설하고, 둘째는 1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

째는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최대 16만8천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 주거 패키지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19~39세 1인 가구 청년에게 월세·이사비·중개보수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지원된다. 2026년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 2027년에는 홀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1월 26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교통 분야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 19~23세 사회초년생 청년, 수원시 등록 장애인에게 무상교통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28만 원 한도로 실제 이용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인하대, 지역정주형 인재 키운다

인천 지역 특성화고와 업무협약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인천금융고등학교·인천중앙여자고등학교와 지역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장현 인하대 I-RISE 인재양성추진단장과 전용화 인천

금융고등학교 교장, 채옥선 인천중앙여자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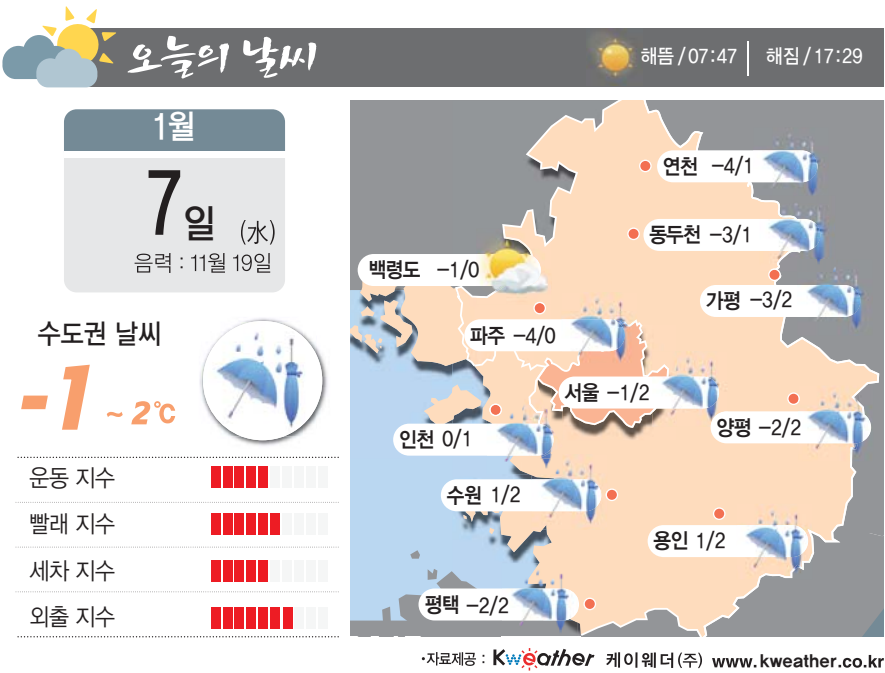
세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진학 및 전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학 연계 교육과정 및 특강 등 공동 기획·운영 ▲교육 인프라 및 인적 자원의 상호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



전용화 인천금융고등학교 교장, 이장현 인하대 I-RISE 인재양성추진단 단장, 채옥선 인천중앙여자고등학교 교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젤렌스키, 캐나다 전재무장관 경제 고문으로 위촉
▲베네수엘라 석유 다음은 그린란드? 트럼프 ‘돈로 독트린’ 가동

▲트럼프 관세에도 8% 성장한 베트남…대미 수출·흑자 역대 최대
▲日정부, 한중 정상회담 논평 코멘트 피해 “韓과 긴밀 의사소통”

▲中‘대만 포위 훈련’ 때 폭격기 등 8대, 日 오키나와·미야코 통과
▲스위스 화재 참사 신원 확인 완료…사망 40명·부상 116명